

마음껏 축복하라 (신명기 33:24-29)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가 서로 서로 마음껏 축복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죽기 전에 한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고 죽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음껏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다. 오늘 맥추절로 지키는데,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시는 은혜의 절기이다. 최고의 축복의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은 이름도 많다.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등이다. 이 맥추절은 구약 시나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새겨주시는데, 하나의 불꽃으로 비취서 돌판에 새겨주신 날이다. '십계'라는 영화에서 불꽃이 돌판을 깨고 말씀 새기는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그 장면이 똑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 생명의 법을 새겨주시는 그런 장면인 것 같다. 그것이 맥추절의 시작이다. 그 불꽃, 그 강한 바람, 그것이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임하는 것이다. 그 때는 불꽃이 돌판으로 글을 썼지만 오순절은 성령의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해서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복음을 새겨주신 것이다. 이것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을 불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오늘 맥추절을 그냥 행사로 지나가지 말고 '똑같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바란다. 나는 나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음 알고 살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똑같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꽃이 새겨지는 것인줄 믿는다.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의 불꽃, 생명의 불꽃이 새겨져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맥추절이 되기를 축원한다.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절을 지키고 예배를 지켜야 한다. 출애굽기 33:24절을 보면 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는 네 지경을 넓히리니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초대교회의 생일이기도 하고 하나님 불같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 오순절, 이 맥추절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살려면 마음껏 축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하였다. 그 집에 함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임할것이고 함당하지 않으면 너희가 빈 평안에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막 축복해줘야 한다. 그 축복을 그 사람이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이 축복 많이 받기 원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축복 못 받겠다 싶은 사람을 막 축복해줘야 한다.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다 나에게로 오는 것이다. 그러면 열배 백배 받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스바냐 1:12보면 '그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않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 말씀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벌도 내리지 않으시는 사람을 등불로 찾아서 벌을 준다고 하였다. 그런 마음이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마음이다. 부정물 통 부어놓으면 찌꺼기가 가라앉는다. 하나님 복도 안주고 벌도 안주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서 벌을 주신다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는가? 뭘 지금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벌준다고 하느냐, 그게 벌받는 마음이다. 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할수 있고 자녀들, 부모님들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면서 살아야 한다. 나만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축복해주는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은 언제나 축복기도로 승리한다. 제물을 마음껏 축복하라고 정했는데, 그게 성경말씀 그대로이다. 창 24:7 이삭이 자기에게서 나가 짐승으로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하였다.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고 한다. 축복도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

축복하게 만들라는 것이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삭은 별미를 요구했지만 우리가 남이 나를, 목사님이 나를 마음껏 축복하게 만들라고 하면 먼저 나에게서 축복기도가 나가야 한다. 이심전심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영전영이 되어야 한다. 영은 영으로 통하고 마음은 마음으로 통하게 되어 있다. 내가 먼저 축복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내가 기도가 시작되면 기도가 전달이 되고, 목사님이 또 다른 성도들이 나를 축복하게 하는 시간표이다. 그래서 이삭의 마음껏 축복기도를 받은 야곱이 열두지파를 향하여서 죽을때 마음껏 축복하고 죽었다. 히브리서 11:21절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모든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고 하였다. 야곱은 마지막 130세 될 때까지 바로 왕앞에서 섰다. 열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다 하고 끝내고 죽었다. 그래서 우리도 죽기전, 살아 있을 때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직도 부모나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특히 주의 사자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기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면서 민수기 6장 축복기도를 주셨다. 하나님 명령이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명령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신명기 33:1절에 보니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축복함이 이려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자식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기도를 하고 있는가?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기도 하고 있는가?

나는 완전 불신가정이었다. 나의 아버님은 사서삼경 통달하시고 유도회 회장하시고 지리산 약수제 하면 가서 제사장 하던 분이였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났었다. 나는 예수 믿고 나니까 나를 아끼던 우리 어르신들이 다 지옥갔구나 생각하니깐 너무 슬펐다. 나는 그 때부터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마음껏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다. 저희 아버님 천국가실 때, 나 예수님 손잡고 천국간다고 하면서 가셨다. 나의 9남매가 다 복음화 되어 많은 열매가 맺혔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라. 마음껏 기도하면 가정복음화 되고, 정말 세계복음화에 멋있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줄로 믿는다.

1. 더 복을 받아 형제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고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라도

아셀의 복을 받으면 더 복을 받아 형제의 기쁨이 된다고 했다. 아셀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는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고 아셀은 특별한 인물도 아닌데, 이 아셀지파에게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아서 형제에게 기쁨이 되라,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것은 기름이면 생각나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기름부음을 받은자, 아셀이 그리스에 발이 잠길만큼 믿음으로 사니까 형제들보다 더 복을 받아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고 축복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형제들에게 기쁨을 줄만큼 복을 받기 바란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형제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가? 돈 많이 벌어서 돈 나눠주면 기쁨이 되나? 형제에게 기쁨을 주는 방법은 네 발이 그리스도에 담겨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기도 해줘야 한다. 그것이 형제에게 생기를 주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다. 인간관계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요즘 다락방 70제자, 70지역, 70이 유행이다. 성경에 70제자라는 말은 없다. 예수님이 70제자를 안 세우고 70인을 세우셨다. 사람을 세우셨다. 제자는 제자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주셨다. 생기를 부어 넣은 다음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돕는 베필을 만들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혼자 살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나올수 있도록 여자를 만든 것이다. 돕는 자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진짜 인간관계는 내가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 형상을 간직하고 돕는 자로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다. 그래서 이 미국은 인사하는 인사가 참 좋은 것이다. 만나면 항상 '하이'한다. 하이가 히브리어로 하

이가 생키라는 뜻이다. 멋있는 인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다. 생키. 하나님께서 생키를 주셨다. 생키있게 살자 그런 셈이다. 생키있게 사는 것은 서로 돕는 자가 되는 것이다. 형제에게 생키를 주고 축복하는 것은 마음껏 기도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8:19,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네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고 하셨다. 두 사람이다. 20절은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 사람이라도 마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서로 마음껏 축복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 마가다락방에는 하나님께서 방언을 터뜨리니까 15개국 사람이 갑자기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영이 통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버렸다. 방언이라는 말은 사투리라는 뜻이다. 지방 말이다. 그래서 서로 방언으로 통했다는 것은 마음이 통하고 정서가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뜻이, 영이 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 세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마음과 뜻과 기도와 정서가 통하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진짜 마음껏 축복하고,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 것을 믿는다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진짜 야곱처럼 죽기 직전까지 기도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해서 이 마지막 아셀을 대표적으로 축복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마음껏 축복하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게 아니다. 그저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진짜 두 세 사람 기도가 통하고 마음껏 통하게 만들려면 지금 한번 돌아보고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나 찾아보라. 오늘 찾기 바란다. 오늘 시작하기 바란다.

나는 새벽기도 하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고 찾아보면, 우리 교회 열두명만 있으면 좋겠다 싶는데, 그만큼 없는 것 같다. 한 사람도 기도가 통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껏 축복을 받는가? 그런데 나는 어렸을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슬펐다. 그래서 남이 나를 축복 기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축복을 해야 한다. 내가 먼저 축복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전달되어서 영이 통해서 같이 기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는다. 그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25절 말씀대로, 네 문지방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이다. 26-27절,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문지방의 철과 놋이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말하자면 팔베게가 된다는 것이다. 내가 마음껏 기도할 때 이런 축복이 일어날 줄 믿는다. 그래서 70제자가 되는 것도 인간관계, 기도관계가 되어야 하고 서로 팀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내가 야곱의 셈이 되게 하소서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이삭이 가서 농사를 지을 때 셈을 파면 셈의 근원이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백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삭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해라, 이것은 야곱의 셈의 근원이 되었다는 말이다. 이삭의 셈의 근원이 야곱에게 흘러와서 열두지파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마음껏 축복하는 축복이 모세에게 내려와서 모세도 열두지파를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의 셈물같은 기도가 되어서 진짜 가정복음화 자녀복음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까지 그 자손의 축복이 계속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야곱의 셈물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란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배것ㅇ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

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런 마음껏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언약을 잡아야 한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나? 여호와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구원받았다는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면, 나같은 것이 구원 받았구나. 나같은 것이 구원받아서 행복하게 되었구나. 나같은 것이 구원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에서 해방받고, 마귀 권세를 이기는 승리가 되었다. 나같은 것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죄인이었다. 죄 가운데 살던 저주받은 인생, 마귀 종노릇하며 살던 나, 이런 나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았다, 나같은 것을 모든 죄를 눈같이 덮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흠을 찾을 수 없도록 완전히 용서하셨다. 그래서 나같은 것을 이렇게 구원받아서 행복하게 하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기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정말 교회 성도를 보면 가정, 자녀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번에 미국에 온 것도, 김진규 목사 아들이 미국에 와서 돈 번다고 전혀 목사 아들답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정말 만나서 권면하고, 이끌어서 RU를 들어가게 만들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갖가에도 안들어갔다. 그러면 통신으로라도 하게 해보자. 내가 등록금 다 대줄게. 그래서 지금 RU를 들어와서 졸업반이 되었다. 그 아들이 전도사가 되고, 또 결혼한다고 하니 내 마음이 참 흐뭇했다. 그래서 렌넬트 한사람 키우자 생각하고 정말 기쁨으로 참석할 수 있었다. 내 자녀도 그렇고 남의 자녀도 그렇다. 진짜 마음껏 기도하면 된다.

그래도 한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복도 안주고 벌도 안준다면 그 사람은 정말 벌받은 사람이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의 입을 통해서 나온 축복이 모세에게까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정말 축복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마음이 통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오늘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정말 두 세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아직 그 기도 공동체가 없는 사람이 많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두 세 사람 같이 기도하는 팀을 만들어야 한다.

제일 먼저 누구하고 마음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그런 사람과 만들어야 하는가? 로마서 16장 보면 바울이 제자 24명 말하고 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 인물들을 소개할 때 바울은 어떻게 소개하나면 나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직자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사랑하나? 바울을, 교역자를,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진짜로 먼저 목사님과 기도가 통하고 영이 통하고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로마서 16장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도 기도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데, 먼저 목사님과 기도가 통하고 영이 통하고, 그래서 온 교회와 통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바란다.

말씀을 마친다. 마음껏 축복할 때, 하나님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행하리라" 하고 응답주실 것 믿는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는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를 이루시기를 바란다. 마음껏 축복하고 두 세 사람이 기도 공동체를 이루는 5인 1조가 되고, 12제자가 되고, 사도 행전의 15개 나라가 되고, 확산되어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까지 가는 것이다. 교회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 아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다. 마음껏 축복하라